

보도 일시	2022. 10. 5.(수) 09:00	배포 일시	2022. 10. 5.(수)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	책임자	과장 김혜주 (044-203-2550)
		담당자	사무관 김남영 (044-203-2549)

프랑스와 멕시코에서 한국 전통문화로 한류 확산한다 - 10월 파리, 과나후아토에서 전통문화 행사 '2022 트래디셔널 코리아'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과 함께 10월 한 달간 프랑스 파리 15구청 및 우리센터(OORI CENTER)와 멕시코 과나후아토 코리아하우스에서 '2022 트래디셔널 코리아(Traditional Korea)'를 열고 한국 전통 의례와 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를 선보여 한류 확산에 힘을 보탠다.

'트래디셔널 코리아'는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전통문화로 확대하고,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이다.

10. 1.~29. 프랑스 파리, '찬란한 정신'을 주제로 행사 진행

이번 행사는 10월 1일(토)과 2일(일), 문화재로 지정된 프랑스 '파리 15구청(Marie du 15e arrondissement)'에서 시작했다. ▲ 소연회장에서는 서울예술대학교 고주원 교수의 조선왕실 보자기와 나전칠기, 한글을 주제로 한 한국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전시 '신색창연(新色蒼然)'을, ▲ 야외광장에서는 우리 전통 놀이인 비사치기·팽이·공기놀이 체험행사와 밥과 찬으로 구성한 한식 한상차림을 선보였다. 한식 도시락을 나누는 '한식: 소반&도시락' 행사도 진행했다.

10월 3일(월)부터 29일(토)까지는 에펠탑 인근에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우리센터(OORI CENTER)'에서 행사가 이어진다. '찬란한 정신(Esprit Ex

quis)’을 주제로 조선 선비 복식 ‘장옷’(이지원 작가)과 함께 전통 원단을 직조하는 과정을 담아낸 매체예술을 만나볼 수 있다. 달항아리, 지우산, 합죽선 등 전통 공예품 28점과 전통 놀이 현대화 콘텐츠 ‘우리놀이상자’도 함께 전시한다. 현지인들이 직접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지 모빌 만들기, 한식 소반 색칠하기도 진행한다.

10. 12.~30. 멕시코 과나후아토, ‘빛나는 삶’ 주제로 행사 진행

멕시코에서는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과나후아토의 ‘세르반티노 축제’와 연계해 10월 12일(수)부터 30일(일)까지 코리아하우스에서 ‘빛나는 삶(La Vida Brillante)’을 주제로 전통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 혼례의 대례식*을 담아낸 ‘아름다운 날’과 첫 들의 상차림에 돌잡이를 더한 ‘축복의 시작’을 전시로 선보인다. 전통혼례 상차림을 중심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이형근 작가의 유기작품과 전통혼례복인 녹원삼과 청단령, 한지로 제작한 전통 꽃가마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고은주 작가의 한지공예 작품이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 문양이 되는 과정을 형상화한 한국 매체예술 ‘서천꽃밭(西天花田)’도 준비했다. 한식문화와 상차림 전반을 보여주는 ‘맛, 멋, 한식당’ 전시와 한국적 이미지를 더한 한식당도 운영한다.

*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고 잔을 주고받는 예식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케이팝과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통문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한국 고유의 다양한 문화를 세계에 더욱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2022 트래디셔널 코리아’ 파리 행사 사진

